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 · 지역사회 위해 달린 36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소비생활 향상 도모, 신속한 분쟁해결, 소비자의 시장주도 역량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다. 지역사회 교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지역 고령자·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생과 나눔의 행사', 지역 일자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매칭데이' 등 기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이 그 주인공.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을 만났다.



(편집자주)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전경.

Q.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부분의 사회공헌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기관 특성을 십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우선 ESG경영 기반 친환경 소비시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 니즈를 파악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개방과 소통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A.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사회와 교류를 최우선으로 하며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1987년 설립돼 사회적 가치 실현...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기관' 농촌일손돕기 · 헌혈 등 사회밀착형 지원...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도

작년에는 약 1,17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농업중앙회와 연계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작물별 수확 시기에 맞춰 '농촌 일손 돕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기관 조사업무의 시료를 활용하여 꽃동네학교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에 757개의 물품을 기증하였고, 임직원들의 따뜻한 동참으로 마련된 사랑나눔기금을 통해 불우청소년과 미혼모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내 지역자활센터 카페 운영 지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과 김장 담그기, 화회

로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A. 지역사회 구성원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여 지역발전 전략과제를 도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 · 관 · 학 65개 기관이 참여한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공동추진위원장에 기관장이 3년간 연임하며 '친환경 현수막의 재활용' 등 13개 신규의제를 발굴하여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가치 관련 성과를 창출했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A. 한국소비자원의 고유 업무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 활동으로 사회배려계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찾아가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행정서비스 수혜격차를 해소하고자 2022년에는 5개 지역 2,422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이동상담, 자동차 · 가전 무상점검 등 수요지역 맞춤형 행사를 시행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A. 상생 ·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다함께소통단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사적 사회공헌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중소 · 소상공인이 취약한 소비자중심의 ESG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해 동반성장협의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아이 낳기 좋은 충북만들기' 범도민협의회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도 "아이 낳기 좋은 지역 만들기 총력"

인구의 날 맞아 범도민협의회 출범... 출산·돌봄 친화 사업 등 전개

충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만들기' 범도민협의회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도지사와 황영호 도의장,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 · 군수, 민간사회단체 등 도내 100여개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제12회 인구의 날(7월 11일)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범도민협의회 출범 경과보고,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이 낳으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여건 마련을 위해 출범한 범도민협의회는 앞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지역의 모든 일원이 출산 · 돌봄 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충북도는 직장 내 육아휴직, 육아기 출 · 퇴근 시간 배려, 경력단절 완화 등 기업체와 학교, 각종 민간 · 공공기관에서 출산 · 돌봄 친화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출산육아수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충북도는 이를 계속 이어가고 확대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임신 · 출산, 난임, 다자녀, 돌봄 등 분야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8월 중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인구문제는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구위기에 대응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충북도,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 선정

단양 지역에 어르신 대상 돌봄로봇 110대 보급

충북도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손용희)이 주관한 '2023년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단양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110명에게 돌봄로봇을 보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모 선정에 따라 도는 국비 5,625만원(50%)을 지원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비 5,625만원(도비 15%, 군비 35%)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1억12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급되는 돌봄로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말벗 기능을 통해 감성 대화를 나누고,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노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되며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긴급상황(터치, 음성명령) 발생 시 보호자 앱 또는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어 위험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어르신 복약시간, 주요일정, 재난 문자 알람 등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돌보게 된다.

대상자 선정 및 로봇 설치(7~8월), 관리인력 등 로봇사용 교육(8월) 등을 마친 후 본격 9월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스마트 돌봄로봇 보급을 통한 보호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비대면 돌봄서비스 강화 등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소비자를 위한 이동상담.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출력 · 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제천시, 분만산부인과 지원 공모 유일 선정

연간 5억원 운영비 지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등

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등으로 분만취약지 전환이 우려되는 지역에 소

제한 분만산부인과에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연세미즈산부인과의원'이 사업수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1차 연도에는 사업비의 50%

인 2.5억원, 2차 연도 이후부터 매년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출생아 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해당 산부인과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미즈산부인과의원은 의료인력 추가채용, 시설 보완,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 적극적인 자세

로 반반의 준비 중이며, 제천 내에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분만 친화적인 제천,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제천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진천군, 가족 친화 사업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을 다



진천군은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민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진천군이 다양한 가족 친화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지역 유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경력 이음플러스 사업 등을 펼쳐며 재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또 올해 처음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체계 조성에 지역 기업도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육아맘들이 아이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역 보육망을 탄탄히 하고 있다.

현재 진천군은 총 1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 관내 일반 어린이집 48개소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학부모부담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닦아가고 있

다.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만 3년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구성요소를 착실히 수행해 왔던 군은 올해 1년 차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 캠페인, 아동권리옹호관,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교육 실무협의체 운영, 아동 영향 평가,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등이 그 예다.

진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며, 구성 요소별 권고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상위단계 인증 획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군에는 4,654명의 등록 장애인인 거주 중이며 올해 약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가구 출산지원금,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장애인교통복지카드,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 발달 재활서비스,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등을 운영 중이다.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상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가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권 최초 사회적기업 친화도시 지정 쾌거

청주시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선

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

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사회적경제 브랜드인 '가치다다' 판로확대, '가치다익' 협업화, '가치다방' 네트워크, '가치다학' 아카데미 등 확장형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주형 내일공간 일자리사업, 가치다다 ON 청주, 청주공예비엔날레 동행, 입주공간 지원 등 기업 수요 정책 성과도 인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친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적기업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충주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안정적 정착 위한 통합돌봄 지원

충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7월부터 8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시는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방난방, 생활용품 등 서비스를 제공해 내 집에서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협력의료기관 케어팀과 의료급여관리사가 기

초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한 케어 플랜 수립,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지원 기간에 주기적으로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은 지난 6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충주의료원과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충주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맞춘

찾아가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도 운영

단양군은 충주의료원(원장 윤창규)과 손잡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보건 의료원 개소에 앞서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충주의료원과 본격적인 동행을 알리는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문근 단양군수를 비롯해 윤창규 충주의료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단양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충주의료원은 '유방 감상선 외과' 우수 의료진 초빙, 재활의학과 과장 영입 등 여러 분야에서 북부권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의료원이다.

단양군과는 지난 2015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협약을 맺어 지역의 여성 건강을 책임져

오고 있다.

군은 진료 협약에서 나아가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번 협약을 통해 단양군 보건 의료원의 성공적인 개소와 운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지역 내 요구도가 높았던 소아청소년과를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데 협의했다.

또한, 추후 충주의료원의 의료진 수급 상황에 따라 관내 미충족 과목에 추가적인 의료진 파견을 군은 요구했다.

한편, 군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제천병원, 명지병원, 검단탑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병원, 바른걸음병원, 아인병원 등과 의료 협약을 체결해 왔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과의 의료 협약을 통해 보건 의료원 운영에 놓인 의료진 수급 문제와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음성군,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추진

저소득층 125가구에 20만원 지원

음성군이 혹서기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고에 대한 우려에 따라 적극적

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과 함께 저소득 125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사업비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로 기탁된 음성군 기부금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발굴·선정한 후 7월 중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대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여름철 무더위와 주거환경·건강 악화 등으로 고립이 우려되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등을 제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여성 위생용품류	머리비,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캔, 소시지, 베이컨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옥천군, '창의어울림센터' 건립 박차

총 사업비 88억 투입 내년 9월 완공 목표

옥천군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할 '창의어울림센터' 건립이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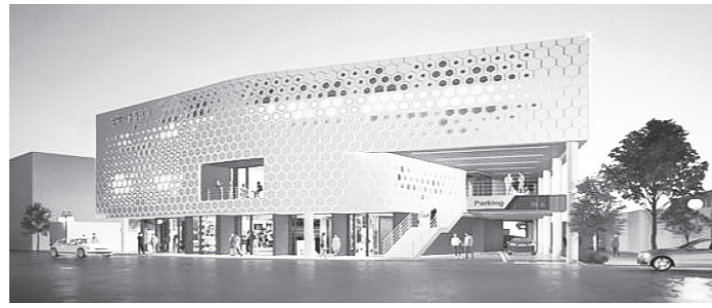
지난 17일 대학타운형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창의어울림센터' 조성 공사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총 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는 창의어울림센터는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767㎡ 규모로 건립한다.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은 상생협력상가(4호), 2층은 청소년 어울림 공간(스터디 카페, 동아리실 등), 3층과 옥상층은 주차장(49면)이 들어선다.

군은 앞서 청소년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창의어울림센터 조감도.

황규철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 시작 후 옥천군에서 처음으로 거점시설을 조성하게 됐다"며 "센터가 충북도립대와 창의

길, 맥자골목 등을 연계하며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천군, 아동학대 발굴·지원 체계 강화방안 마련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계획

옥천군은 지난 25일 아동학대 예방·대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옥천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대한 발굴·지원 체계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학대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또 지자체와 협의체 차원에서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굴체계의 구축 방안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 아동, 행위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협의체는 유관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아동

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위기아동 선제 발굴·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구성된 단체로,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증평군,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돌봄사업 방향 논의



이재영 증평군수는 지난 13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브라운백 미팅을 주재했다.

돌봄사업 확대 5개소 돌봄나눔터 조성 계획

증평군은 지난 13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작은도서관 관장 및 돌봄활동가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운백 미팅을

주재했다. 이번 모임은 기존 돌봄사업에 참여한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신규로 참여할 예정인 작

은도서관도 함께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앞으로의 돌봄사업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손정아 관장은 "아파트 내에 가정과 가장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과 가까워지고, 안전한 아동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최근 증평의 인구 및 출생아 증가로

돌봄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행복 온(ON) 돌봄사업 추진으로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확대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증평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평군의 행복 온(ON)돌봄사업 중 작은도서관 돌봄사업은 지난해부터 4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 돌봄시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인건비 지원,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돌봄사업을 확대해 5개소 행복 돌봄나눔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증평군, 복지재정 효율 집행 위해 수급가구 정비

인적정보 정비 및 현행화로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

증평군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종 자료를 정비한다. 군은 31일까지 수급자 가구

원 인적정보 현행화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료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 2회 이뤄지는 인적정보 정비는 사회보장

급여 대상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정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현행화로 보장급여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대조해 불일치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110가구의 인적사항을 정비한다.

군은 정비 결과 조사 대상에 추가되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가구로 제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이달 말까지 증평군청 복지지원과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적극 발굴

돌발 위기사유 발생한 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3개월간 지원

괴산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의 가구로 금융재산 600만원,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생계비(1인 가구 기준 623,300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

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또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

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영동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 건강 챙기기'

방문건강관리사업 모바일 업무 환경 구축, 효율성 증진

영동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와 모성 및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자 및 방문전담인력 이 질병예방, 보건 의료 상담과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의료취약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현재 영동군에는 3,500여명의

주민이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다.

주민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 서비스는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암환자 관리, 허약노인(낙상, 약물복용, 우울) 등 건강문제관리와 계절별(폭염, 한파 등) 건강관리교육 등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제외된다. 단 인지지원 등 급자는 가능하다.

특히,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즉각적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업무 환경을 구축했다.

최근 담당 보건지소, 진료소 등 27곳에 업무용 태블릿pc를 제공 후 방문현장 교육을 시행해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방문대상자의 등록·관리, 건강면접조사 등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진행하게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시작되며 건강취약계층의 인부가 우려되고 있기에,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방문전담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문제 및 거동상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은군, 청년마을 발대식 갖고 본격 운영

총 사업비 21억200만원 투입해 조성 계획

보은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마을로 선정된 라이더타운 '회인호(하이)'가 지난 14일 회인면 중앙리(구)회인어린아파트 앞에서 발대식 갖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을 가지고 화려한 시작을 알린 '회인호(하이)'는 향후 3년간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이 시골살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금토일 캠프', 라이더들을 위한 '힐러즈 페스티벌' 등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회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재형 군수는 축사를 통해 "우리가 그저 청주로 나가기 위한 고갯길 린이집 앞에서 발대식 갖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회인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자원을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한 회인 청년들의 발상 전환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한편, 군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의 연계사업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도비·군비 등 11억200만원 등 총 사업비 21억200만원을 투입해 회인면 중앙리 일원에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공유주거 10개소와 커뮤니티센터 1개소 등을 2024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군 청년담당 서근석 주무관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거는 기대가 높고 평가한다"며 "청년마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인구가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내년 최저임금 9860원... 1만원 못미쳐

올해보다 2.5%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지

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연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명에서 334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지난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가장 심의의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던 기록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로 가장 기록을 7년 만에 같아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업무절차.

“직접 찾아가 위기가구 발굴”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작... 빅데이터 활용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올해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되고 있다.

단전·단수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이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4차 발굴 대상자는 15만 명 규모로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다.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단, 단가스 등 위기 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1만 명,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1만 명이 발

굴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부터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 조사 범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4차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연내 재난의료비지원대상 등 5종 정보에 대한 추가입수(39종-44종)를 통해 위기 가구 발굴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시) 2023 - 1992 - 1 = 30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2023 - 1992 = 31세

만 나이 계산법. 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적 분쟁·민원 해소 전망

법령·계약·공문서 등 특별 규정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 빠른 정착 위해 교육·홍보 지속... 사회적 비용 절감도

법제처는 지난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

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

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지난달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 과제, 52개 완료·72개 추진·8개 발굴”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인구정책 18건 등 개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 올 상반기 동안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의 과제는 지속 추진 중이며, 새롭게 8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 기준

개선,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차감제도 폐지 등 사회복지정책 17건과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개선 및 공적 개입 강화, 아동수당 소급지원 확대 등 인구정책 18건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진료 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첨단제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등 보건의료정책 17건 등을 포함해 모두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으며, 미완의 과제 72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토킹방지법 시행... 상담부터 주거지원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18일부터 스톱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톱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톱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톱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톱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톱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톱킹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모금회 호우 피해 특별모금 진행

다음달 16일까지 접수... 기부금세제혜택 가능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8월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2023년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해 지원한다.

성금접수는 농협 313-01-144258(충북공동모금회)로 받으며, 기부자는 충북모금회(☎

043-238-9100)로 연락하여 기부금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성 회장은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피해 지역 주민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기준 청주·괴산·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호우피해 특별모금

☎ 모금계좌 : 농협 313-01-144258 / 충북공동모금회



모금 기간 : 7월 17일 - 8월 16일
 지원계획 : 전국재해구호협회 통해 지원
 현물(의연금품)은 지역구호센터(지자체)를 통해 지원
 기부문의 : 043)238-9100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년 호우 피해 특별모금' 안내문.



청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1일 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과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원지역자활센터·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 업무협약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지역복지 사회안전망 확대

청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호)와 청주청남라이온스클럽

(회장 임경목)이 지난 11일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청원지역자활센터 관할 저소득 독거노인가정 30가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추진

진됐다.

김경호 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다양화 되는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경목 회장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복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원지역자활센터는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택배, 외식, 도배, 자원순환, 이미용사업 등 13개 사업단에 100여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제천시가족센터 '이중언어강사 2급' 자격 취득



제천시가족센터는 지난 14일 '이중언어강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 후 수료식을 진행했다.

제천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석원)에서 지난 14일 운영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결혼

이민자 10명이 '이중언어강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고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이중언어강사 2급 자격과정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의 후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5개국 10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언어교육을 제공해 주는 전문적인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양성과정을 통해 이중언어강사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앞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활동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호우 이재민 심리지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김경배·이하 충북적십자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오송읍 복지회관에 임시

부스를 마련하고 심리활동가를 파견해 이재민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리플릿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심리상담은 집중호우 위

험으로부터 피신한 일시 대피자 약 45명을 우선으로 지원했으며, 추후 심리지원이 필요한 재난 대상자들에게 대한 비대면 상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043-262-71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에 직·간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재난심리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청주드림신협, 어부바박스 150개 후원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여름나기 위해 전달



청주드림신협에서 지난 14일 청주가경노인복지관에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어부바박스 150개를 후원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김현숙)은 지난 14일 청주드림신협(이사장 박상진)에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어부바박스

(삼계탕, 햇반, 물티슈 등 생필품박스) 15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받은 어부바박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 대상자 150명에게 전달됐다.

박상진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절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행사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필요에 항상 귀 기울이며 공동체와 함께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보사회복지관, 영양죽 지원 '죽이 잘 맞네'

저작능력 등 감소한 노인 대상

삼보사회복지관(관장 정태선)은 19일 우양재단에서 지원하는 영양죽 지원사업 '죽이 잘 맞네'를 실시했다.

우양재단은 '먹거리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비전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이다.

이번 영양죽 지원사업 '죽이 잘 맞네'는 노화로 인해 저작 및 소화능력이 감소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삼보사회복지관은 지난 19일 우양재단에서 지원하는 영양죽 지원사업 '죽이 잘 맞네'를 실시했다.

중 14명을 선정해 294개 영양죽을 지원했다.

정태선 관장은 "무더운 여름 어

르신들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 기력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로타리클럽은 지난 13일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충주로타리클럽,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후원

결식아동 지원 위해 100만원 기탁

충주로타리클럽(회장 김관수)은 13일 결식아동지원을 위해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싹회 사랑의 제빵'의 재료비

로 사용되며 만들어진 수제빵은 저소득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3곳, 87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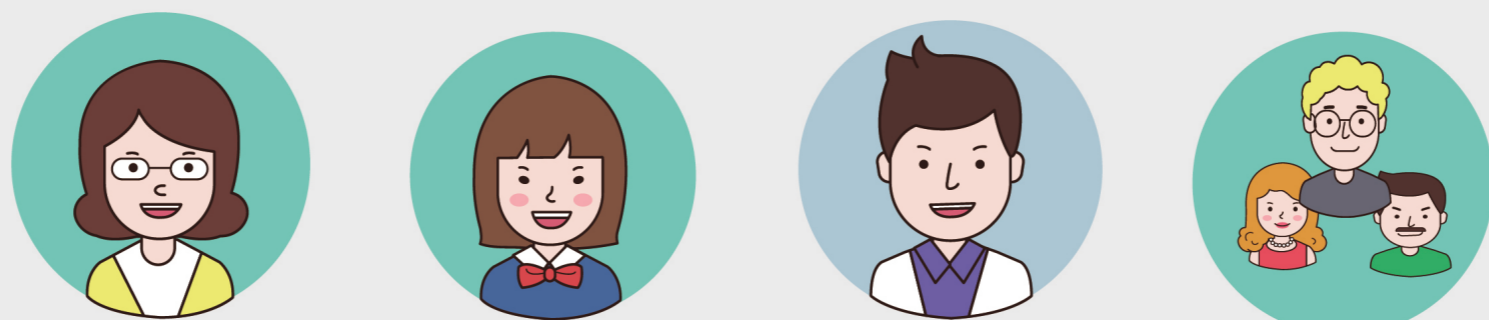
김관수 회장은 "지역 내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광훈 관장은 "매년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충주로타리클럽에 감사하며, 양질의 빵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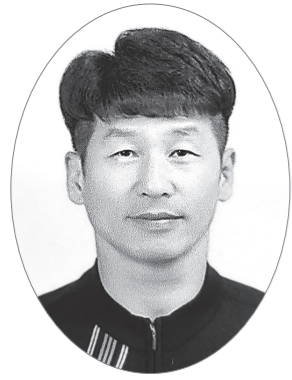
한편, 김관수 회장은 2015년부터 꾸준히 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품을 지원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복지광장

‘사회복지시설 탈시설화’ 아동복지시설의 현실은...



옥 형 호

충북육아원 사무국장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이슈 중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시설 탈시설화’에 대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애인거주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잘못된 해석과 한쪽 의견만을 듣고 진행한 것 같다’는 피터 De-Beats 총괄이 밝힌 생각을 주목하게 되었다. 필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것이 2001년 9월이다. 당시 근무환경은 보육사 6명이 아동

70여 명을 보육하는 상황으로 정말 열악했다.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아동 복지를 하는 이유는 한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그간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상실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었다. 바로 ‘탈시설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잘못된 정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한국사회복지시설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은 감소하게 되었고, 사회적 ‘탈시설화’ 분위기에 아동복지시설은 마치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다. 정주시의 경우, 아동보호팀이 시청 내 아동보육과에 함께 상주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호아동이 발생 할 경우 그 순위가 가정복귀, 가정위탁, 그룹홈, 쉼터 그리고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아동양육시설의 제도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치료보호 대상아동, 장애증후가 있어 보이는 아동 및 외국인(무자격자) 자녀 등을 입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분류에는 크게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생활시설이 직원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보육사’ 채용은 현재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다. 아동양육시설은 설립 특성상 장애아동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서 치료 시설에 들어가야 할 아동이 입소하는 시설이 아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이러한 아동들이 입소아동의 과반을 향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경제선 지능 아동까지 합할 경우, 보육사들은 아동양육지도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근무자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 살펴보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현 정책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고, 구직을 하려는 사회복지사들의 수요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서두에 말했던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아동복지관련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재해석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켜온 선구자들이 현재 정책의 흐름 속에 걸리지 못하고, 현장을 모두 떠난 뒤에는 그 누가 다시 아동복지 시설의 현장을 지키려 할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아동복지시설의 탈시설화가 아니라, 현재 사회적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에 대한 재검토와 준비를 통해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위험대상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의 설립 및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관계자들과의 만남과 회의 등에서 많이 듣는 말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곳이 없다’는 말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많은 사회문제가 노출되어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지역사회 아동이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필자 또한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아동복지를 위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복지포럼

‘가정 밖 청소년’과 동행하다



이 상 기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

그렇다보니 가정 밖 청소년들 가운데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유해업소에 빠져 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심과 성장을 돕는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설치됐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즉,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인 것이다. 충북도내에는 일시이동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세 가지 유형의 총 7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내가 근무하고 있는 중장기 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홀로서기 즉, 자립을 위해 3년 내외의 보호기간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쉼터를 퇴소한 후에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쉼터 청소년들은 혼자 집을 나와 또래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먼저 빨리 걸 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쉼터가 손을 잡고 함께 발을 맞추어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든든히 뒤에 서 있어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훗날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이며 결국 이것이 순환 고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마음을 모아 가정 밖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해 본다.

현장의 목소리



이 승 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복지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을 나누어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세 가지 키워드는 아마 아동, 장애인, 노인일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단순히 빈곤과 질병에 국한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우리의 머릿속에는 대상화된 키워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 함께 생각난 이미지도 있을 것이다. 밝게 웃고 있는 아이, 휠체어를 탄 장

애인, 흰 백발을 가진 노인까지. 인터넷에 해당 단어를 검색해 이미지를 확인 해 보아도 앞서 언급한 이미지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필자 역시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노인복지관으로 이직하기 전 다른 복지현장에 있으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다. 주민운동에 참여하며 만난 지역의 통장·동대표, 사례관리를 하며 만난 조손가정의 할머니·할아버지,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까지. 다양한 상황·모습으로 있는 어르신을 만나 왔지만 그중 백발을 가진 어르신은 드물었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어르신은 더욱 적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은 힘이 넘치고, 본인이 사는 현장을 사랑했으며, 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음과 실천력이 큰 사람이었다. 경험과 나이에서 뿔어져 나오는 연륜으로 길을 잃은 주무관과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였고, 지역 내 자원을 직접 조직하여 활동하는 실천가였으며, 본인의 불편함을 스스로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가였다. 노인과 어르신. 비슷한 나이의대 긴 인생을 살아온 선배시신을 지칭하는

노인에 대하여

두 단어가 가진 의미를 곱씹어 보는 동안,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께서 필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장문의 카톡을 하나 보내주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점 10가지를 적어둔 글이었는데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었고 어르신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의 이정표가 될 말을 보내주었다. “복지관에 오기 전 나는 노인이었고, 복지관에 온 후의 나는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할아버지,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어르신으로 존중해 주니 나 스스로가 어르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배우고 있어요. 혼자되지 않게 가꾸고 배우고 즐거움을 주는 복지관과 선생님께 늘 감사합니다” 과정을 조금 보태어 손녀뻘 되는 필자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르신을 위해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고민은 무엇일까?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압축적 고령화를 겪으며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었고, 빈곤한 노인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는 노인일자리리를 만들어 냈다. 노인 돌봄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로 확대되었을 때에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이를 넘어선 지역사회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은퇴한 노인의 오후를 행복하게 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안에는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취미여가 지원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하였으나 2020년 이후로는 전문화된 상담과 취약노인 우선 지원을 노인복지관의 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 단순 취미여가만의 성격을 유지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취미여가의 지원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 특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적은 같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은 실천하는 내용이 다르다. 도시지역의 어르신과 농촌지역 어르신의 욕구가 다르듯, 이용자인 어르신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이 홀로 할 수도, 노인복지관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노인이 노인이 아닌 어르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어르신이 어르신답게 나이들 수 있도록, 현장의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집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의 소재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정미철의 경우, 폭우로 인하여 천장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 때가 있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벽면을 타고 빗물이 흘러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이 벽지 등 교체 수선비용을 부담해야 될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해야 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의 소재가 궁금합니다.

A.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일컬어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합니다.

만일 누수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누수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원인이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누수 등의 문제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어서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즉, 임대인은 상가나 주택 등 계약 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선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은 누수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누수에 관련한 하자를 확인하고 이를 하자로 인정하고서 최소한의 보수공사라도 진행하여야만, 임대인 자신의 수선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만일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

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인사동정

■ 영동군청
▷ 행정복지관광국장 서종석 / 7월 1일자

■ 진천군청
▷ 복지행정국장 송석호 / 7월 1일자

■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센터장 김애자 / 7월 1일자

■ 증평복지재단
▷ 이사장 신연택 / 7월 13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반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참여자 모집]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운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직업체력 등 낮시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4~216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과후활동서비스 참여자 모집]

- 신청대상: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력, 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4~2169)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이 없고 사실상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청주시가족센터, 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 회복지원사업 "우리 가족이 하나되는 순간: 가족의 온도 36.5"]

- 신청대상: 원가정 기능회복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 등
-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청주시가족센터, 함께하면 아름다운 "행복어울림"]

- 신청대상: 한국 생활에 복잡적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손)자녀 학습멘토링서비스, 가족문화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 및 법률 지원 연계 등
- 지원기간: 등록시기부터 1년 이내(최대 1년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3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3월 ~ 12월 (연중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문의: 043-234-0840
- 참고: <https://www.043w.or.kr/>

[사랑의열매, 제5회 학술연구지원 공모 안내]

- 공모주제: 나눔문화 활성화 관련 기부, 나눔, 비영리 분야 자유 주제
- 공모대상: 박사학위 소지자(전문연구자 부문), 석사학위 과정생 이상(일반연구자 부문)
- 지원내용: 연구비 지원(전문연구자 부문 1천만원, 일반연구자 부문 5백만원 / 연구기간 2024. 1. 1. ~ 11. 30.)
- 신청기간: 2023. 7. 1.(토)~10. 31.(화)
- 결과발표: 2023. 12. 6. 개별 안내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research@chest.or.kr) 온라인 제출
- 문의: 02-6262-3196 / yroh@chest.or.kr

[KBS경태원복지재단, 마을단위NPO 협약 기관 모집]

- 사업소개: 전국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약혜택: 위기가정 지원금(1가정당 최대 500만원 지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 사례관리

지원금(사례관리비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출장비, 물품구입비, 식대비 등)

- 신청자격: 전국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2023년 5월부터 적용),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지원금 집행: 해당 기관(단체) 명의의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하여 지원금을 집행·관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 내 온라인 신청
- 문의: 02-781-2951

자원 봉사자 모집

▶ 행정업무(전산입력) 업무 보조
관리센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50-1226

▶ 초등학생 학습지도 말벗
관리센터: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7-1487

▶ 다문화자녀 대상 프로그램 업무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63-1818

▶ 학습지원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98-0199

▶ 낭동봉사자 모집 및 오디션 참여 안내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7-5544

▶ 단순 작업 및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관리센터: 충북중증장애인복지협회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22-8890

▶ 로봇 활용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동 보조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883-2470

▶ 어르신스마트기기 사용법안내봉사자모집
관리센터: 청주가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36-0111

▶ 독거노인 방문 정서지원 프로그램 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산남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288-1435

▶ 만성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업무 보조
관리센터: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8.1~8.31
전화번호: 043-872-1883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누리재능기부복지회, 공연·예술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누리재능기부복지회(단장 김금자)는 지난 7월 7일부터 30일까지 총 9회 청주시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금자 단장은 "어르신들의 하루의 일부가 우리 봉사단으로 인해 활기차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 즐겁다"며 "어르신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다 보면 오히려 힘을 얻어 더 즐겁게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누리재능기부복지회는 2018년 6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만/평

대응 매뉴얼

이창신 www.bokmani.com

